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 | | | | | | |
|--------|------|----------------------|------|--------------------|----|---------------|
|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6, 1-27, 3-8 | 제2독서 | 코린터 1서 15, 1-11 | 복음 | 루카 5, 1-11 |
|--------|------|----------------------|------|--------------------|----|---------------|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복음(루카)과 같은 내용이 마르코와 마태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을 보시고 느닷없이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구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훌쩍 예수님을 따라나설 수 있었던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겔네사렛 호수가에 모여든 백성을 가르치실 곳으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얼마 전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기에 부탁하기가 만만했을 것입니다. (루카 4, 38)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신 다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놀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본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됩니다. (루카 5, 4~11) 이것은 베드로가 뭔가 커다란 체험을 한 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자신의 전문성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고기잡이에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시몬이 예수님의 제안을 무시해서 그물을 던지길 포기했다면 12사도의 으뜸인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더없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을 던지기 전의 예수님은 ‘선생님’ 이었는데, 고기잡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의 예수님은 ‘주님’ 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그물을 던지도록 영향을 준 몇 가지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비롯하여 여러 병자를 고쳐 주신 일들과 마귀를 쫓아내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모종의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카 4, 31~41)

두 번째, 자신의 배에서 백성을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공감했던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기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1, 35~42)

형제 자매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 제안대로 그물을 내릴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3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레지오, 빈첸시오, 구역반장, 선종봉사부, 생명환경 활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는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② 성경 읽기와 쓰기를 비롯하여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르면 신앙성숙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③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다는 기대를 간직하는 것, 욕은 나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성숙의 계기를 만날 것입니다.

| 일 자 | 전 려 력 | 미사시간 |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 |
|------------|--|-----------------|--------------|--------------------|
| 2월 11일(화) | 연중 제5주간 화요일 | 오후 7시30분 | 주일헌금 | \$ 1,163.00 |
| | | | 교무금 | \$ 4,645.00 |
| 2월 12일(수) | 연중 제5주간 수요일 | 오전 8시 | 도네이션 | \$ 200.00 |
| | | | 미사예물 | \$ 2,376.00 |
| 2월 13일(목) | 연중 제5주간 목요일 | 오후 7시30분 | 성물방 | \$ 294.00 |
| 2월 14일(금) |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 오전 10시 | 사랑의 급식 | \$ 364.00 |
| 2월 15일(토) | 연중 제 5주간 토요일 | 오후 7시30분 | 합 계 | \$ 9,042.00 |
| 2월 16일(주일) | 연중 제6주일 | 오전 9시 오전 11시 | 미사참례자 | 학생: 7명 성인: 167명 |
| 교무금 봉헌자 | 최응철(1-12)김수용, 엄희수, 정태환, (1-6)염상보(2-3)김영숙, 김순애, 지종원, 윤재경, 광우경, 이재덕, 김상돈, 임복순, 김규대, 지복원, (2)김호성, 김창현(1)이재임, 박종윤, 지영욱, 최재진, 이승렬, 이미자(1-2) 박희현(11, 12, 1, 2) | | | |

주님의 기도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두 가지가 전해져옵니다. 루카가 전하는 주님의 기도(루카11, 2-4)와 마태오가 전하는 주님의 기도(마태6, 9-13)입니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다섯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이고,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일곱 가지 청원으로 이뤄진 긴 주님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태오 복음의 긴 기도문을 기본 기도문으로 채택해 전례를 비롯해 각종 예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고, 또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주님의 기도가 유일합니다.

신학자인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첫째,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둘째,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까지도 형성시켜 준다"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전례 기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또한 교회의 기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요, 정점인 전례, 특히 성찬례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찬례에서 "감사기도와 영성체 사이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성령 청원기도에 담겨 있는 청원과 전구를 요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체로 미리 맛보게 될 천국 잔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2270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일곱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그 분이 나의 뿌리, 나의 기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죄스러운 인간이 감히 가까이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거룩함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라고 고백하는 자녀다운 신뢰심과 함께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 흠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갈라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영원과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영원도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한 자녀로서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일치와 친교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이란 특정한 공간 또는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의 정을 고백하며 자녀다운 신뢰심으로 겸손하게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 상식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사무장 201-774-7489/전례부장 916-990-6531)◎

| 구분 | 봉 헌 자 | 지 향 | 구분 | 봉 헌 자 | 지 향 |
|----|-----------------|------------------|----|---------------------|------------------------|
| 연 | 서바오로, 류실비아 |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 생 | 김평옥 모니카 | 아들 Shawn Hovey 영육간의 건강 |
| 연 | 김순녀 도미질라 |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 생 | 이요안나 |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
| 연 | 박니콜, 박수옥 글라라 | 권흥주 특인 베드로의 영혼 | 생 | 류승교바오로, 류재순 마리안나 | 대한민국 국정 평화안정을 위해 |
| 연 | 이서향 미카엘라 | 이옥련 마리아 영혼 | 생 | 곽유경 데레사 | 임준섭 요셉 건강 |
| 연 | 홍명숙 세라피나 | 홍성규 이냐시오 영혼 | 생 | 임그라시아 | 임원호 시몬(생일), 임재형 영육건강 |
| 연 | 김영선 미카엘라 | 홍성규 이냐시오 영혼 | 생 | 이영숙 데레사 | 임시몬 영육건강 (생일) |
| | | | 생 | 아빌라 데레사 | 이선화 크리스티나 영육건강(생일) |
| 생 | 안기창 프란치스코 가정 | 안효준 요셉의 영육건강(생일) | 생 | 김영선 미카엘라 | 임준섭 요셉 건강회복 |
| 생 | 김규철 레오 가정 | 임준섭 요셉의 건강회복 | 생 | 김정애 헬레나 | 진 엘리사 영육건강 (생일) |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외딴 교우 교리 시작

2월 9일 교중미사 후 시작

기간 : 부활 세례 전까지

교리 : 대부모, 배우자 함께 참석

2. 구역장 임명(2025년)

3구역 : 김동현 미카엘

공동체를 위하여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사목회의

일시: 23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단체활동

5구역: 2/16(일) 미사후 마태오방

6구역: 2/15(토) 박 벤자민 맥 (5시)

7구역: 2/16(일) 사랑의 급식 봉사후 친교실

8구역: 2/16(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2/16(일) 미사후 루카방

10구역: 2/22(토) 김두황 다니엘 맥 (5시30분)

아빌라데레사회 : 2/9(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복지부 : 16일(일) 오후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5. 본당 꾸리아

일시: 16일(주일) 엘리사벳방

각 뵤레시디움 4간부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6. 사랑의 급식 안내

1) 2월 16일 (주일): 7구역

메뉴: 소고기 무국 금액: \$5

2) 2월 23일 (주일): 정혜엘리사벳회

메뉴: 소고기 미역국 금액: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7. 북가주 성가 나눔

일시 : 3/8 (토) 11시

장소: 오클랜드 성당 (점심식사 제공)

8. 영정 사진 촬영 안내

2월 16일, 23일 미사 후 연령회 주관으로 친교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주방 공사 관련 회의 안내

주방 공사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여성단체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9 미사 후

장소: 엘리사벳 방

10. 공지사항

그동안 리노공사로 후원되었던 사랑의 급식 수익금이 올해부터는 본당 주방 업그레이드 공사 비용으로 후원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제대초봉헌: 최정신 데레사(\$100)

김주동 스테파노 (\$100)

화답송

시편 138(137), 1-2. 2. 3. 4. 5. 7. 8. (1. 2.)



주님 -,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 | | | |
|------|--------------|---------------|---------------|--------------|
| 전례봉사 | 연중 제5주일(2/9) | 연중 제6주일(2/16) | 연중 제7주일(2/23) | 연중 제8주일(3/2) |
| 미사해설 | 곽유경 / 최금주 | 박문교 / 김진영 | 지혜진 / 전병옥 | 박희현 / 이해련 |
| 독서 | 9시 | 황건영 / 허준희 | 윤지명 / 박예린 | 박예진 / 황건영 |
| | 11시 | 안강순 / 이서향 | 송돈희 / 조용주 | 구준모 / 박수옥 |
| 복사 | 9시 | 박예진 / 곽아인 | 김노아 / 오은수 | 지마리 / 임가빈 |
| | 11시 | 윤지현 / 송돈희 | 김규철 / 김영준 | 윤준호 / 서성정 |
| 헌금위원 | 셋별Pr. | 창조주의 어머니Pr. | 천상의 모후Pr. | 셋별Pr. |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201-774-7489) E-Mail:prisca0118kim@gmail.com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 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